

축 사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완도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 단결하는 정신으로 전 군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하는 『제48회 완도 군민의 날』 입니다. 오늘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완도군의 영광과 군민여러분들의 앞날에 더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윤영일 국회의원과 완도군 해조류산업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 다니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신의준, 이 철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동료의원님과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군의 명예를 선양하신 공로로 오늘 군민의 상을 수상하신 신 선 교수님과 명예 군민의상을 받으신 고명석 원장님, 구자영 청장님, 박종범 대표이사님, 오득실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를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완도는 1,200년전 장보고대사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오늘 날을 일구어 왔습니다.

또한 풍부한 해양문화와 청정한 바다와 섬을 관광 자원화 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고 싶은 곳으로, 차별화되고 품격 높은 해양문화 관광의 1번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전복, 광어 등 각종 활어를 비롯한 고품격 수산물과 전국 제일의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생산하는 해조류의 고장입니다.

이렇듯 군민 한분 한분의 저력과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 온 성과는 완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밝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완도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도·연륙교 사업 등 완도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모두가 질서와 반목 없이 더 나은 완도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지역의 주력 산업인 수산양식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수산양식산업의 위기는 행정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과 유통업체, 그리고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완도의 번영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완도의 진정한 주인은 완도군민 여러분입니다.

오늘 마흔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군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후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완도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제48회 군민의 날을 경축드리며, 우리 완도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